

# 광주 남구 “허위사실 유포” “경찰 수사중” 공방

<강운태>

<지병문>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직능연합당이 지난달 31일 강운태 광주 남구 후보(무소속)의 선거사무실에서 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 지병문 통합민주당 광주 남구 후보가 이날 방림동 송림아파트 노인정을 방문,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나령주기자 mjna@kwangju.co.kr

## 4·9 총선 표밭

○광주·전남지역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는 광주 남구에서 지난달 31일 무소속 강운태 후보캠프가 상대인 민주당 지병문 후보 캠프를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발하자, 지 후보 캠프에선 ‘무작위적인 고발 선거전 술일 뿐’이라고 반박하는 등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했다.  
 강 후보 측은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 후보 캠프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이 담긴 전화를 함에 따라 내용을 녹음해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며 “전화내용에는 ‘강 후보가 당선되면 한나라당에 입당할 것이다, 강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는 조작된 것이다’라는 등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지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자원봉사자가 고발인의 유도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생각을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진위여부가 가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 후보는 이날 오후 4시 선거운동원들이 대거 가세한 가운데 백운동 현대아파트 로터리에서 집중유세를 펼치며 유권자들을 상대로 지지를 부탁했으며, 한나라당 노영복 후보는 조봉초등학교와 동아여중고, 광주대 등을 방문, 교직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지지를 당부했다.  
 장연주 민주당 후보는 같은 당 김현정 후보(북을)와 함께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어린이 보호·보육문제’에 관한 공약을 발표한 뒤, 표발현장을 누비며 유권자들에게 환영을 부렸다.

### 박지원 “목포 원도심·신도심 병행발전 필요”

○박지원 목포시 후보(무소속)는 연일 계속되는 거리유세와 개별적인 만남 등을 통해 ‘목포 원도심 낙후 및 영산강 하구둑 출퇴근길 교통체증 문제 해결’과 목포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획기적인 청사진을 연달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목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병행발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원도심은 전통과 복지·문화·관광·청소년을 테마로 한 복합단지로 개발하고, 신도심은 미래지향의 첨단산업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 최인기 ‘수도권 번개 지원유세’ 참여

○최인기 통합민주당 나수·화순 후보는 수도권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후보들의 긴급 지원요청을 받아들여 1일 ‘번개 수도권 번개 지원유세 및 정책 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다.  
 최 후보는 1일 오전 9시 중앙당 당사에서 열리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와 11시30분 국회에서 열리는 ‘한반도 대운하 관련, 정책선거 캠페인’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오후부터는 순환구 대표 등 통합민주당 수도권지역 후보 지원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 조영택 “위기의 쏠 중심도시 지켜내겠다”

○조영택 통합민주당 광주 서구갑 후보는 지난달 31일 5.18공원과 신세계 백화점 앞길 등에서 거리유세를 열고 교회와 성당, 재래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갖는 등 총선 승리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조 후보는 “광주의 미래가 걸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공부한 국정 및 지방행정 경험, 그리고 경륜과 능력을 갖춘 진짜 일꾼 조영택을 지지해, 위기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주선 통합민주당 광주 동구 후보의 부인 이현숙 여사가 지난달 31일 동구지역 사찰과 경로당 등을 시간대별로 순회하며 남편 박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해 눈길.  
 이 여사는 이날 오전 지산동 만경사를 찾은 데 이어 두암동 율곡아파트경로당과 장원, 산수 경로당 등을 방문해 “광주 자치구 중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동구에서 노인복지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박 후보를 적극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 노인복지정책 추진 위해 박주선 지지해

○김태욱, 중심사 일대서 도심 공동화 해소 논의  
 김 후보는 중심사 입구에서 시민들과 약속을 나누며 지지를 당부한데 이어 인근 상가를 찾아 도청이전으로 초래된 도심 공동화현상 해소방안과 함께 침체한 동구 외곽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 노인복지정책 추진 위해 박주선 지지해

○오병윤 민주당노동당 광주 서구을 후보는 지난달 31일부터 유세차에 직접 탑승, 금호동 전역을 돌아보는 노동유세전을 전개했다.  
 오 후보는 “이번 선거는 선거 구도가 늦게 형성된데다, 본 선거 기간이 대단히 짧아 유권자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이같은 조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세차에 직접 올라 전 지역을 돌면서 삼삼오오 모여 있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유세를 벌이는 게릴라전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윤영기·김지열기자 penfoot@kwangju.co.kr

## “부동표 잡아라” 與野 총력전

민주 '견제론·대운하 추진' 쟁점화 표심 호소

한나라, 20~40% 부동층 흡수시 과반 자신

4·9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선거분위기가 떠오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은 선거구마다 20~40%에 이르는 부동표 흡수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판단, 부동층 공략을 총선 중반 최대의 공략 포인트로 삼고 있다.  
 ◇민주당=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론’에 한반도 대운하 밀실 추진을 쟁점화하면서 부동층을 파고든다는 전략이다.  
 박선숙 총선거획단 부단장은 지난달 31일 “부동층 가운데 상당수는 견제론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유권자에게 견제야당으로서 믿음을 심어주는 게 공략의 포인트”라고 말했다.  
 여기에 한나라당을 ‘반(反)서민 부자당’으로 각인시키고 민주당을 ‘서민과 중산층’ 대변당으로 이미지화 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문제는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인물 경쟁력을 뒷받침 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는 한나라당 지지층은 결집하고, 참여정부 실정론으로 등을 돌린 과거 전통적 지지세력의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가장 확실한 지지층인 수도권 호남출신 유권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호남 유권자 공략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투표율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판단 아래 민주당에 우호적인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표를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나라당=향후 부동층 공략만 제대로 한다면 과반 의석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48개 지역구가 있는 서울에서도 30곳 이상을 무난히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영남권 역시 일부 진박 탈당 인사들의 선전이 예상되지만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라고 자체 판단하고 있다. 충청지역도 초반 열세에서 경합 지역으로 상황이 호전될 곳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평가다.  
 한나라당은 이를 고착화하기 위해 선거전 중반 이후를 양당 구도로 몰고 간다는 전략이다. /박지열기자 jkpark@kwangju.co.kr

## 설사표 표는 표도 아니다?

전남지역 섬 주민들이 4·9총선을 앞두고 후보들에 대한 불만이 많다. 선거는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후보들의 얼굴조차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도서벽지이고 주민 수가 적다고는 하지만 무시당하는 기분을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다.  
 지난달 31일 해남군 화산면 하마도 임영환(48)이장은 “지금까지 후보자 얼굴을 한 번도 못 봤다. 후보 선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며 불만을 털어냈다. 거창한 섬 지역 개발 방안은 제쳐놓고라도 직접 찾아와 얼굴과 정책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를 단 1명이라도 보고 싶다는 것이다.  
 임이장은 “150여명 주민들 대부분이 하루 종일 바다에 나갔다 오후 늦게 들어오다보니 TV나 홍보물 볼 틈도 없는 데, 후보들과 정책도 알 수 없으니 답답하긴 하다”면서 “투표소까지 가려면 개인 배를 타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투표하러 갈 주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인근 화산면 상마도 이현자(62) 이장은 “섬 사람이 표는 표도 아니다”고 꾸짖었다. 평소에도 섬 지역 주민이라 소외감을 갖고 있는데 150여명밖에 살지 않는다고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 김 양식이 종사하는 섬 주민들 사이에서는 마무리 작업으로 한창 바쁜 상황에서 투표소까지 배를 타고 나가야 하는 점도 부담이라는 반응이다.  
 300여명의 주민들이 모여 사는 해남군 송지면 어불도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도서지역이라고 여지껏 찾아오지 않는 후보들이 아속하다는 것이다. 신안 지역과 안도지역 섬 주민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반면 후보들은 기상 악화, 비용 문제 등을 들어 섬까지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기 여객선이 없는 섬 지역은 수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개인 배를 빌려야 하는데도 그나마 큰 마음먹고 섬에 들어갔다가 기상이라도 악화돼 돌아오지 못하면 선거 운동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지열기자 dok2000@kwangju.co.kr

### 4·9총선 선거운동 중용 골드레이크 외원권 분양·상담

**골드레이크CC** | **골드스파&리조트** | **골드레이크빌리지**

골드레이크CC: 10·28, 30·57평형  
 골드스파&리조트: 10·28, 30·57평형  
 골드레이크빌리지: 5·5평형 ~ 20세대, 6·1평형 ~ 4세대

문의: 060-700-3653

### 휴 피서 장사해 40억을 번 이야기

100여명 주민들이 하루 종일 바다에 나갔다 오후 늦게 들어오다보니 TV나 홍보물 볼 틈도 없는 데, 후보들과 정책도 알 수 없으니 답답하긴 하다

문의: 060-700-3653 | www.crento.co.kr